표류하던 강정 민간마리나 조성 탄력 받나

세 차례 재공모 끝에 우선협상사업자 1곳 선정
추진 협상 원활하면 6월부터 사업 본격화 전망

사업 신청자가 나타나지 않아 외면받던 강정 민간마리나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강정 민간마리나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선정 재공모 결과 1곳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평가 결과 해당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향후 해당 업체와의 사업 추진 협상이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 오는 6월부터 강정 민간마리나 어항개발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강정 민간마리나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5월과 7월 두차례 사업시행자 선정 공모를 실시했지만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도내 크루즈 시장이 침체기인데다, 마리나산업이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되면서 장기 표류 우려까지 낳게 했다. 더불어 거액의 자본 투입 부담이 기피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올해 1월30일부터 2월28일까지 세번째 공모를 진행한 끝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강정 민간마리나는 어업환경 변화에 맞춰 기존 강정항 내 유휴공간에 관광, 휴양 등의 기능을 더한 새로운 공간을 조성해 어촌지역의 발전 및 소득 증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요트계류시설 5선석, 클럽하우스 1동 및 부대시설 1식 등의 조성을 맡는다.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37억원이다.

제주도는 일단 강정 민간마리나가 활성화되면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 관광객과 연계해 해양관광의 새로운 상품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오조리 저지대 상습침수 피해 줄인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추진
시, 타당성 조사후 중앙 협의

국지성 호우 때마다 도로와 주택의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상습침수지역에 대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신규 지정이 추진된다.

서귀포시는 오조리 124-6번지 일대 저지대에 대해 올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지역은 장마철 집중호우나 태풍 내습시 도로와 주택의 침수피해로 주민불편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며 재해위험 요인의 근원적인 해소가 필요한 지역이다. 특히 이 지역은 서귀포시가 저지대 침수 피해대책 마련을 위해 2018년 실시한 '유지(溜池) 실태조사' 용역 결과 배수로 역할을 하던 사유지 습지가 2017년 매립된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유지는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연못 등을 말한다.

시는 오조리 상습침수지역의 항구적인 침수피해 대책 마련과 국고 지원을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안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신규 지정될 수 있도록 3월 중 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중앙부처와의 협의는 물론 국비 확보를 위해 대중앙 절충에 나설 계획이다. 또 실시설계과정에서 배수로와 물을 모아놓는 유수지, 배수펌프장 등을 갖추는 데 따른 사유지 매입 등도 토지주와 협의할 예정이다.

2018년 6월 30일 성산읍 오조리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저지대 도로로 빗물이 모여들어 일대 주택이 침수 직전 상황에 처해 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과 방재시설을 포함한 주변지역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지구로 지정되면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다크 투어리즘 관광지 지정·육성 근거 마련

정민구 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제주지역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한 다크 투어리즘 관광지 지정·육성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은 9일 '제주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5년마다 다크 투어리즘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크 투어리즘 관광지를 지정·육성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해당 조례는 제주지역의 역사적 사실 및 장소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해 지속가능한 관광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크 투어리즘'은 4·3사건 등 제주지역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 및 장소를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생명·평화·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관광을 말한다.

한편 해당 조례 제정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승아(제주시 오라동)·현길호(제주시 조천읍) 의원이 공동 발의로 참여하고 있다.

오은지기자

물 절약 8.5% 효과… 절수기 보급사업 추진

제주시, 31일까지 희망자 신청

제주시는 수돗물 아껴쓰기 일환으로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물 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절수기기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사업비 1억원을 투입,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제주시 관내 단독 및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 절수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절수기를 설치한 공중화장실이나 초등학교 및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의 물 사용량을 분석해본 결과 기존과 비교해 약 8.5%의 물절약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돼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절수기기 설치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31일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및 제주시 상하수도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2001년 9월 29일 이전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 세면기용과 샤워헤드용 절수기가 보급될 예정이며, 공중화장실, 숙박업, 목욕업, 체육시설업 등은 제외된다.

시는 이와 병행해 절수설비 의무설치 대상 건축물의 의무화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윤형기자 yhlee@ihalla.com

"헬스케어타운·첨단과기단지 등 국제자유도시 핵심사업 완성 총력"

취임 1년 문대림 JDC이사장 추진 성과·업무계획 발표
2첨단단지 등 정상화 본격
예래휴양형단지 소송 아닌 다른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

취임 1주년을 맞은 문대림 JDC이사장이 9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은 올해 헬스케어타운, 첨단과기단지, 영어교육도시 등 국제자유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존 핵심사업의 완성도 제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 이사장은 지난 7일 취임 1주년을 맞아 9일 취임 이후 추진 성과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JDC의 핵심 프로젝트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특히 문 이사장은 "취임과 동시에 장옥량 녹지그룹 총재를 만나는 등 신뢰관계 회복에 총력을 기울였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 녹지그룹의 외국인직접투자 1072억원 도착 신고로 공사비 미지급금을 전액 상환하면서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의 정상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는 전략적 소송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한편 그동안 단절됐던 버자야 그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법정소송이 아닌 다른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전했다.

더불어 프로젝트 및 도민지원사업과 연계한 일자리 약 8200개(지난해말 기준 누계)를 창출하는 등 지역상생 기반을 강화하고, 홍보마케팅 활성화를 통해 지난해 면세점 매출액 5075억원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첨단과학기술단지에 다음 카카오 등 162개사 입주 및 산업시설 용지 100% 분양과 국가연구과제인 '초소형전기차 기반 모빌리티 연계형 이동서비스 실증' 사업 수행기관 선정 등을 성과로 꼽았다.

문 이사장은 "제2첨단 과기단지는 손실보상을 완료하고 인허가 추진을 통해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라면서 "공공임대주택은 올해 준공 및 입주를 원활히 추진할 계획이며, 신화역사공원의 J지구는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헬스케어타운 내 의료서비스센터 착공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핵심사업의 완성도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오은지기자

5년간 협의 끝에 건물 철거
하모리 교차로 인도개설 추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교차로 동쪽 도시계획도로의 인도 미개설구간 30m에 대한 포장공사가 곧 추진된다.

서귀포시는 하모리 시계탑 교차로에서 매립지 교차로까지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중 토지주와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장기간 중단됐던 공사가 토지주와의 협의와 건물 철거가 최근 마무리됨에 따라 인도 개설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구간은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중 미협의 토지 1필지와 건물(2층 상가와 주택) 보상가 상향 요구 등으로 철거를 거부하며 2015년 인도 미개설구간 30m만 남기고 공사가 중단됐었다. 이에 인도가 중간에 끊기면서 보행자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돼 왔다.

시는 그 후 2018년 10월 미협의 토지에 대한 재감정 평가를 실시해 토지주와 수 차례 보상협의와 설득 끝에 올해 1월 보상협의를 마치고 이사하면서 2월 건물을 철거했다.

문미숙기자

해외.영농 투자자 모집
사업명 : 제주한라봉.레드향.감귤농장
■ 영농지역 : 베트남.다낭 (꽝남성)
■ 사업규모 : 300ha (약100만평)
■ 영농투자인원 : 5-6人 선착순
■ 투자금액
1인당 10만usd 1억2천만원
■ 투 자 자
1인1ha (3천평). 현지. 국제. 변호사공증. 본인명의
■ 사용기간 : 50년간
■ 소 득
2년 경과후 3만usd 보장
농장매매 및 상속가능
재해보험가입가능 (주.정부행정지원)
문의 상담 제주시 봉개동 (황금농원)
H.p. 010-9292-6933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라실생 4년생
유라실생 3년생
유라실생 접수분양
천 혜 향 4년생
성전온주 4년생
황 금 향 4년생
탱 자 묘 1년생, 수고 70전
유라조생 2년생 특묘 사전계약 안내
한림종묘
010-3690-2453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영귤
• 히로시마7호
• 궁천변이지
• 천전(가와다) 온주(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묘목 접수 판매(1년생 묘목 접수만 취급)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제)州(주)리모델링
辛(신)一(일)祚(조)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붙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는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